

전쟁불구름을 몰아오는 부분별한 망동

얼마전 윤석열역적패당이 하반기 합동군사연습일을 공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남조선호전광들은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미국과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인 《울지 프리덤 월드》를 벌여놓고 여기에 판도에 전개된 미핵전략폭격기 《B-52H》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한편 새로 작성한 《작전계획 2022》도 적용하려 하고있다.

또한 8월에 사상 처음으로 민간핵방호훈련을, 10월에는 《한미연합사드훈련》과 대규모야외기동훈련인 《호국》을, 11월에는 남조선군위협소연습인 《태극》 등 연말까지 북침전쟁연습들을 줄줄이 벌여놓으려 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이러한 반공화국군사적대결소동은 조선반도안정환경에 매우 위험한 후폭풍과 역류를 몰아올 수 있는 폭발잠재력을 내포한 부분별한 호전적광태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울지 프리덤 월드》에 적

용하려고 하는 《작전계획 2022》만 놓고보아도 미핵전략자산을 동원하여 공화국의 중요대상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극히 위험천만한 반공화국핵전쟁각본이다.

그리고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강행하고있고 앞으로 벌리려는 모든 전쟁연습들은 반공화국핵대결강령인 《위성통신연》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것이며 그들이 입버릇처럼 외워대는 《압도적대승》과 《선제타격》수법을 숙달하기 위한 핵전쟁시연회, 예비전쟁이다.

얼마전에도 역적패당은 그 무슨 《2023년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2023년전반기 합동참모본부 작전간행방공훈련》을 실시한 것을 언이 벌여놓고 그 누구의 《위협》에 따른 그 무슨 《대승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도의관이 미국상정과 결탁하여 반공화국전략전행기도를 현실화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더론할 여지도 없다.

더우기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은 남조선과 그 주변지

역에 핵전략자산을 끌어들이고 크고작은 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그 목적이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자는데 있다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마련이듯이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그칠새없이 벌리는 반공화국핵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정세를 실제적인 무력충돌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역적패당의 반공화국전쟁대결소동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극도로 과열시키는 근원이 어디에 있고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가 누구인가 하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핵강대국의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 벅스까지 차있는 반공화국대결야망으로부터 반공화국전쟁소동에 광분하고있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망동에 불과하다.

불을 줄기는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김 상 현

남조선의 친미사대 매국노들이 미국과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행정협정》을 조작한 지 57년이 지났다.

알려진바와 같이 1966년 7월 9일 미국과 박정희역적패당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재판권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남조선미국 《행정협정》(《SOFA》)을 조작하고 그 다음해인 1967년 2월 정식 발표시켰다.

이 《협정》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점을 합법화하고 강점자들에게 형사재판과 토지 및 시설사용, 세금업무, 《출입국》수속 등 모든 면에서 무제한한 특권지위를 부여해

예속과 굴종의 매국 《협정》

줄뿐 아니라 침략군의 범죄까지 무마해주는 전대미문의 매국 《협정》이며 현대판노예문서이다.

이 굴욕적인 《행정협정》에 따라 남조선강점 미군은 남조선에서 치외법권적존재로 행사하면서 인민들에게 해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이쳤다.

의정부집단탄핵사건, 유금이사해사건, 매향리폭탄투하사건, 두 너중학생학살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강점 미군이 력대적으로 강행한 아수적인 만행들은 오늘날도 만사람의 치

를 떨게 하고있다.

미군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살인과 폭행, 약탈로도 성취치 않아 남조선도처에 저들의 군사기지를 만들어놓고 유독성물질을 마구 내버려 강도를 황폐화시켰을뿐 아니라 핵무기와 살아있는 탄저균, 지카바이러스를 비롯한 생화학무기들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 각종 생화학실험과 훈련을 벌려왔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과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에 따라 인제한번 문제

를 제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더 활개를 치고 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까마귀가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미군범죄가 없는 날은 없다.》고 하면서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의 폐기와 남조선강점 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남조선의 력대 위치자들, 특히 윤석열역적패당은 침략자, 강점자인 미국을 《혈맹》으로, 《우방》으로 키쳐올리며 친미사대매국행위

를 거리낌없이 일삼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강점과 지배를 지속되고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 사대매국노들이 그대로 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이 언제 가도 불행과 고통,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이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을 비롯하여 미국과 체결한 온갖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들의 폐기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면서 반미, 반윤석열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고 영 수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언론장악행동을 로골화하고있다.

역적패당은 언론계의 주요요직들에 앉았있는 이전 《정권》시기의 인물들을 강제해임시키고 그 자리들에 리명박역도집권시기 언론관망의 주역들만 앉힌 채와대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을 하였던자를 비롯한 보수계력들을 박아넣으려고 책동하고있다. 또한 《MBC》, 《KBS》를 비롯한 언론사들이 저들의 통치행위를 저술비난하였다 고 하여 《편파방송》, 《가짜뉴스의 강본인》으로 몰아대고 박해를 가하고 있으며 《방송법》을 뜯어고쳐 막대한 재정적부담감들까지 부추려 하고있다.

언론에 대한 역도의 집은 마수는 인터넷에도 미치고있다. 역적패당은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검색사이트들이 온통

자들에 대한 비난기사로 채워져있다고 하면서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여 인터넷언론사들의 보도활동을 통제하려 하고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검열사이트들을 감독통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발견위원회》, 《가짜뉴스퇴치전문단》을 내오려 하고있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책동은 언론의 공정하고 보도활동을 가로막고 언론을 저들의 반역행위, 반인민적악정과 독재통치를 미화하는 어용나팔수, 《정권》의 시너로 만들기 위한 비열하고 악랄한 언론장악, 언론관망책동이다.

남조선언론들의 활동은 역적패당이 떠드는것처럼 《편파 보도》나 《가짜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역적패당의 외세의 존적이고 반인민적인 통치가 빚어낸 남조선사회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것이고 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원한과 분노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공정한 언론활동이다.

사실 지금 남조선은 윤석열역적패당의 친미친일사대매국책동과 검찰파쇼정치, 친제법, 특권독속위주의 정치와 부정부패,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으로 파국의 진멸속

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경제는 최악이고 민생은 도란에 빠져들며 정권권은 서로 물고뜯는 시정배들의 개싸움판으로 되었다.

또한 정의와 진리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물론 생존권을 요구하는 막바지인생들까지 《독도》로 매도되어 가혹한 탄압을 받고있다. 특히 역적패당이 매일같이 광란으로 벌리는 반공화국전쟁소동으로 안보불안도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분노는 극도에 이르고 그것은 반윤석열, 반 《정부》투쟁으로 폭발하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이러한 현실, 이러한 민심을 그대로 전하고 남조선을 암흑사회로 만든 역적패당을 민심을 대변하여 단죄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이것을 《편파 보도》, 《가짜뉴스》로, 사회를 혼란과 파국에 몰아가는 《외국 보도》로 매도하면서 언론관망, 언론장악에 미쳐달라고 하는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은 역적패당의 언론장악책동에 대해 《대국민선전포고》,

《포괄적인 방공장악기도》, 《구시대적방상》, 《언론자유말살사도》라고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언론장악을 통해 여론의 흐름을 통제하고 통치위기를 수습해보려 하고있지만 그것은 정의와 진리, 민심을 등진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더욱 여실히 드러내놓는 망동으로 남조선인민의 반윤석열, 반 《정부》투쟁기운을 더욱 높일 뿐이다.

본사기자 김 영 범

윤석열역도가 찍하면 해외행각놀음을 벌려놓고있다. 역도는 지난해 3차에 걸쳐 6개 나라를 돌아친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도 5차에 걸쳐 7개 나라를 나돌았다.

윤석열역도가 변질나게 벌리는 해외행각놀음은 《외교적적》으로 대내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는 도피행각, 사대와 굴종으로 대외적고립과 위기를 더욱 격화시킨 죄악을 합리화해보려는 광대국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금

미국 특등전쟁사환군

남조선호전광들이 이러한 핵전쟁피해를 끌어들이는것은 공화국을 핵선제타격하여 전 조선을 병탄하고 나아가서 조선반도 주변나라들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제압하여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지휘봉에 따른 것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과 주변나라들은 《(싸드) 배비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전에 대한 엄청난 위협이다》, 《(싸드)는 생방관계의 기초를 흔들게 될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싸드》의 배비와 운영을 견결히 반대해나서고 있는것이다.

역적패당이 그 누구의 《핵위협》을 구실로 사상 처음으로 벌리려는 민간핵방호훈련 역시 미국의 반공화

국핵전쟁기도에 편승하여 강행하려는 용납 못할 핵전쟁도발책동이다.

역적패당이 미국의 핵전쟁책동의 공범자로서의 저들의 죄악은 당반우에 올려놓고 적반하장격으로 《북핵 위협》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철면피의 극치로서 그들이 얼마나 친미사대와 반공화국대결에 환장이 되어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실증해 준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입버릇처럼 외워대고있는 《북핵 및 미사일위협》이라는것은 《싸드》와 같은 핵선제타격

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핵전쟁준비를 최종완성하고 임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을 핵선제타격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싸드》의 배비로 남조선은 미국의 반공화국압살과 아시아태평양양자배전략수행을 위한 핵선제타격, 핵화약고

로 더욱 철저히 전략되고 주변나라들은 미국의 핵공격목표가 되어 세계적인 핵전쟁위험이 더욱 증대되게 되었다.

특히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가장 첨예한 핵열점지역, 세계적인 핵전쟁의 발원지로 되게 되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반공화국핵전쟁책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는 오늘의 준엄한 현실은 역적패당이야말로 미국의 특등전쟁사환군이고 극악한 호전광이며 친화적무리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준다.

장 영 범



최근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로동계를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의 대중적투쟁이 날로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이를 가로막아보려는 역적패당의 책동도 극도에 달하고있다.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계의 《정권》퇴진투쟁에 걸친 역적패당이 최근 그 무슨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대책》을 떠들며 155개 경찰부대 인력 9 300여명을 강제집압에 내보내는 등 로동계 말살책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사례이다.

역적패당의 발악적책동으로 적지 않은 시위참가자들이 부상당하고 강제연행되는 사례들이 빚어지고있다.

과거 군사파쇼도당을 통가하는 야만적폭거가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집권초기부터 강행 추진하고있는 《기업위주성장정책》과 대기업 《법인세인하》, 《로동시

간유연화》와 같은 반로동정책으로 하여 남조선로동자들의 삶이 막바지로 끌려들어지고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는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기에 근로대중의 삶보다 저들의 집권유지와 극소수에 달하는 특권층의 치부만을 추구하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남조선 각

계층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

올해에 들어서서만도 로동계를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이 《민생과탄 못살겠다, 윤석열 퇴진하라!》, 《정치장패, 검찰독재 윤석열야라!》, 《우리가 주인이다, 조블이 이긴다》 등의 구호말에 매일과 같이 윤석열퇴진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민주로총》은 7월 3일부터 2주일동안 윤석열역도의 반로동정책에 항거하여 40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총파업투쟁을 전개하고 《한국로총》과의 연대투쟁도 계획하는 등 대중적인 윤석열퇴진투쟁에 필기해나서고있다.

이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의

《국정성과물》도 내놓을수 없는 처지에서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해외행각을 통해 대내통치위기를 수습해보려고 어리석게 타산하고있다.

이로부터 역도는 계기때마

는것이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도 역도가 한것이란 밀일상질을 비롯한 외세에 추종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겠다는 의도

이며 《국정운영》의 성패는 민생과 경제성공에 의해 좌우된다. 윤석열의 외교관 《야마츄외교》, 《굴욕외교》, 《망신외교》라고 혹평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윤석열역도가 갖은 오그랑수를 다 써가며 제 몸값을 울리려고 해도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 각계의 반윤석열, 반 《정부》투쟁기운은 누락할 수 없다.

본사기자 김 광 혁

군사파쇼독재를 용가하는 야만적폭거

